

한국의 미래 확보—서울대학 강연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

서울, 2013년 12월 5일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울대학을 방문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연천 총장님, 문휘창 학장님 및 이근 부학장님, 그리고 오늘의 사회자이신 박태호 교수님의 따뜻한 환영에 감사 드립니다. 또한 이 훌륭한 대학을 졸업한 IMF의 한국 대표인 윤종원 상임이사에게도 감사를 표시하고 싶습니다.

서울대학은 참으로 한국 최고의 고등교육 기관입니다. 교육과 학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에서, 여러분들은 최고의 인재 중 최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지식과 학습의 불을 지펴, 한국 사회를 발전시키고 한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것은 라틴어 교훈인 *Veritas Lux Mea*—“진리는 나의 빛”을 실천한 결과입니다.

한국의 현대사는 서울대학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대학은 여러분이 받은 유산이며, 여러분의 목표는 품격을 높이고, 열정을 불태우고,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서라"는 아이작 뉴턴의 말에서 거인을 달리 표현한다면, 놀랄 만큼 짧은 기간 동안에 기반이 약한 경제를 강력하고 튼튼하게 발전시킨 이전 세대의 한국인들을 지칭합니다.

한국은 기적을 일으키고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입니다. 1960년대에,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경제 규모가 세계 13위로 가장 번영하는 국가가 되었고, 1인당 소득이 유럽연합의 평균보다 높은 매우 부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항상 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한데 뭉친 강인한 의지로 성공을 달성했습니다. 과거시험을 치르던 조선 시대에서부터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을 강조하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인들은 항상 실력주의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놀랄만한 일이 아닐 수도 있으나, 한국은 인상적인 성장률과 부러워할 정도의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전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고대로부터 발명과 기술혁신의 땅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경이로운 기술로 계속 전세계를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류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글로벌 경제를 전망할 때 두 가지 명확한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아시아는 경제의 무게 중심으로 신속하게 부상하고 있고, 21 세기는 아시아의 세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로, 전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 연결되고 관계를 맺고 있으며, 다자주의의 활성화와 긴밀한 경제 협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한국은 미래의 글로벌 경제에서 더 많은 리더십 역할을 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국이 과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고의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i) 한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선도적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ii) 한국이 다자주의와 국제적인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글로벌 경제에서 선도적 위치를 유지

먼저, 한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선도적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단단한 기반 위에서 시작하고, 유명한 한국 고전에 언급된 것처럼, 뿌리가 깊으면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뿌리들 중에는 참으로 매우 오래된 것들도 있습니다.

한국은 현대에 들어서서 많은 시험에 부딪쳤고, 그럴 때마다 자신감과 회복력이 증가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금융 위기라는 충격적인 경험을 한 후에, 낮은 인플레이션, 건전한 국가 재정, 충분한 외환 보유고 같은 경제적 뿌리가 강화되었습니다. 한국은 다른 많은 선진국들이 대공황을 일으킨 것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회복력은 2008 년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빛을 발했습니다. 한국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심한 타격을 받았고, 120 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2010 년에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한국은 5년 전보다 회복력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한국은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여 은행들이 건전한 완충 자본과 적절한 대외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또한 사전에 거시건전성 정책을 실시하여 금융 위험에 대처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건전성과 준비성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성장률은 증가하고 있고, 2014년에는 약 3¼퍼센트로 더욱 상승할 것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시장의 혼란으로 인해 휘청거리고 있을 때, 한국은 안전한 피난처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계속 발전하려면 이처럼 깊고 튼튼한 뿌리 위에 경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은 경제의 뿌리를 보살피고 영양분을 공급하여 향후에 몇 세대에 걸쳐 경제를 튼튼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특히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 중일 때 성장 잠재력을 견실하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며, 한국의 인구는 2050년까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고령 인구가 많은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한국의 장기적인 성장률은 2025년까지 금세기가 시작될 때의 약 5 퍼센트보다도 낮은 2 퍼센트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면서 한국이 경제 기적을 이루는 데 기여한 사회 통합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상황은 심각한 우려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급변하는 경제 속에서 직장을 얻고 품위 있는 생활을 하기를 희망하는 여러분과 같은 젊은이들에게 발생할 것이며, 최근에 졸업한 학생들 중 절반은 풀타임 직장을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취약한 미래에 직면해 있고 전체 인구에 비해 빈곤해질 가능성이 3배나 높은 노인들 사이에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싸이의 풍자적인 노래인 *강남 스타일*과 같은 대중 문화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지금까지 매우 잘 해온 조치(견실한 성장과 뛰어난 형평성을 혼합)를 계속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의 포용성을 증가시키고, 서비스 시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두 가지 주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방법에 대해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 시장의 포용성 증가

먼저, 노동 시장의 포용성을 증가시키는 것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이중성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들은 일자리에 대해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고, 상당히 많은 임금과 복지 혜택을 받습니다. 비정규직(임시직 또는 파트타임) 근로자들은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하고, 교육이 부족하고, 사회보험 혜택이 적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노동력의 약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중성을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혜택과 교육을 증가시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젊은이와 여성들의 취업률이 낮은 것입니다.

한국 젊은이들의 취업률은 24 퍼센트에 불과하여, OECD 평균인 40 퍼센트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 결과, 대학 외 고등교육 기관에 등록하는 젊은이들이 많지만, 구직자들이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아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해결책은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과 직업 교육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한국 여성의 노동력 참여율은 약 60 퍼센트로서, 한국 남성보다 23 퍼센트 포인트가 낮고,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성별 불평등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의 성별 소득 격차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한국의 관리자 중에서 9 퍼센트만이 여성이며, OECD 회원국의 평균은 29 퍼센트입니다.

여성의 노동력 참여를 증가시키는 것은 엄청난 이득을 얻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최근의 한 IMF 연구에 의하면,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성들이 바쁜 생활의 균형을 더 잘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면 성별 격차를 3분의 1 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정책에 대한 예에는 보육 시설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고 융통성 있는 근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한국은 대단히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자신감 있고, 교육을 많이 받은 혁신적인 여성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밤에 이러한 여성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여성들은 이미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회에 기여를 하고 더 많은 지도력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뛰어난 여성 대통령의 주도 하에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K-팝 그룹의 이름을 빌어서 말씀드리면 다음 세대는 *소녀(여성)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시장의 생산성 향상

장기적 성장에 대한 두 번째 주요 장애물은 서비스 부문의 낮은 생산성입니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활기있는 제조 부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은 제조 부문의 약 절반에 불과하여, OECD 보다 더 많은 격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명성 높은 제조 부문의 활력을 서비스 부문으로 전환할 때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적절히 혼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체와 같은 분야에서 경쟁을 강화하고, 투자를 증가시키고, 중소기업을 상업 분야에 따라 재편성하고, 정부 보증에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저는 정부가 이 분야에 대해 의욕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한국은 항상 의욕적인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 곧 더 많은 분야에서 최첨단의 기술혁신 국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개혁으로부터 얻는 전반적인 이득

한국은 적절한 개혁 패키지를 실행함으로써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며, 한 가지 예로 향후 10년 동안 3½-4 퍼센트의 장기적인 성장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개혁에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오랫동안 한국의 특징이었던 건전한 예산 책정과 낮은 세금으로 인해, 한국이 이러한 비용을 지불할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 복지 지출도 적어서, OECD 회원국 중에서 두 번째로 적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보육원과 유아원에 대한 스웨덴의 공공 지출은 GDP에 대한 비율로 비교할 때, 한국보다 5배가 높습니다.

또한 개혁의 적절한 순서도 중요하므로, 보다 심층적이고 어려운 개혁에 착수하기 전에 강력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 패키지를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나, 저는 한국이 힘을 모아 어려운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은 한국이 21세기 글로벌 경제를 주도할 적절한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다자주의와 국제적인 책임

이제, 한국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다자주의에 참여하고, 국제적인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계속 해가는 방법과, 또 이러한 상황에서 IMF와 어떤 관계를 수립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받은 유산은 곧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더 넓은 세계로 진출하는 것은 항상 한국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항상 다자주의와 국제적인 협력을 확고하게 지지해 왔습니다.

저는 한국이 전세계에 대한 책임을 매우 중대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강력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견실하고 균형 잡힌 글로벌 경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은 3년 전에 이곳 서울에서 매우 성공적인 G20 리더 정상회담을 주최했습니다.

저는 세계 경제 속의 한국의 위치가 운명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의 발전 과정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개발도상국들의 역할 모델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국가들과 많은 것을 공유하고,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특별한 한류, 즉 경제적인 한류가 전세계로 파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매우 중요한 녹색기후기금을 유치할 예정이며, 이 기금은 개발도상국들이 21세기 최대의 경제적 도전인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것을 지원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입니다.

또한 한국과 전체 아시아 국가들은 IMF에서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국제 협력을 유도할 것입니다.

IMF는 모든 국가들이 공유 기금에 자금을 출연하여 도움이 필요한 개별 회원국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상조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이 한국 문화에서 생활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IMF의 기능은 어려울 때 서로 도움을 주는 사회 조직인 한국의 "계"와 유사합니다.

한국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IMF의 기본 원칙은 매우 간단합니다. 글로벌 경제의 안정성을 특정한 지역의 경제 문제보다 먼저 고려함으로써, 밀물이 바다에서 배들을 밀어 올리는 것처럼 모든 국가들이 번영을 이루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국가 간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IMF가 설립된 70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중요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현재의 글로벌 경제가 그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원칙은 더욱 중요합니다.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는 긴밀한 협력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IMF는 설립 당시의 원칙들을 지켜야 하지만, 또한 현재의 글로벌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실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까요?

먼저, 모든 국가, 모든 부문, 모든 시장을 결합시키는 복잡한 상호 연결망과 글로벌 경제에서 빠르게 파급되는 스피로버에 훨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전세계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일자리와 경제 성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IMF의 대출 방식을 현재의 글로벌 경제에 맞춤화해야 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금융 위기는 전세계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글로벌 위기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한국을 포함하는 회원국들의 관대한 출연금 덕택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IMF는 이러한 출연금을 사용하여 회원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 조정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3,000여 억 달러를 제공했고, 150건의 새로운 지원(가장 빈곤한 회원국들에 대한 무이자 대출 포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의 지원은 더 융통성이 있어, 장기간에 걸쳐 재정 문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거시경제의 안정성과 경제 성장 같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둡니다. 또한 사회적 조건에 맞추어서 사회 안전망을 제공 및 보호하고, 이러한 조정의 부담을 공정하게 공유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IMF는 개발 역량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이것이 개발도상국들이 경제 관리를 강화하고 강력한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IMF가 제공하는 지원과 조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한국의 관대한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오늘 아침에 IMF의 역량 개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500만 달러의 기여금을 제공할 것에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글로벌 연대에 대한 투자로서, 개발도상국들에게 한국의 성과를 따를 수 있는 탄탄한 토대를 구축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세계에 적응하는 한편, 미래의 세계를 위해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 통합이 증가하면 많은 이익이 있을 것이나, 위기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경제 성장과 안정성은 기후 변화,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화 및 불평등의 확대가 급속히 진행되는 것과 같은 이른바 "새로운 위험의 프론티어"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협력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진정한 "새로운 파트너십의 프론티어"가 필요합니다. IMF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신뢰를 받아야 하며, 이것은 회원국들의 요구를 최대한으로 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한국과 같은 역동적인 국가들에게 더 많은 의결권을 제공하는 2010년의 IMF 개혁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국은 이처럼 중요한 개혁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왔고, 저는 이러한 개혁이 곧 완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과 IMF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저는 IMF 아시아태평양국의 신임 국장으로 이 우수한 대학의 학생이었고 또한 교수로 재직했던 이창용 박사를 임명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파트너십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은 쌍방향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IMF는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여러분들로부터 배우고, 여러분을 지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파트너십이 진정한 우호 관계로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맺음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의 학생들은 머지 않은 장래에 한국의 괄목할 만한 역사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한국 국민과 세계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성실한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책임입니다. 한국의 독립운동 지도자인 백범 김구 선생은 다음과 같이 우리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럽게 걸지 말라. 오늘 네가 걷는 발자국은 언젠가 후세 사람의 길이 되리니."

여러분은 이러한 길을 걸을 때, 한쪽 눈은 미래를 바라보고 한국이 이룬 기적적인 성공을 지속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 눈은 세계 공동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긴 여행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동행하는 것이 항상 더 쉽기 때문입니다.

IMF를 국가 공동체가 공동의 이익을 향해서 함께 출발하는 긴 여정을 지원하는 기구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가 힘을 합치면 미래의 성공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